

# 새 발굴 가사집 『춘경가(春景歌)』 작품 세계 연구\*

이민희\*\*

- I. 들어가며
- II. 가사집 『춘경가』 개관
- III. 『춘경가』의 작품 세계와 규방 가사로서의 의미
- IV. 나오며

## <국문초록>

가사집 『춘경가』는 한글박물관 소장본으로, 학계에 처음 소개되는 것이다. 총 4편의 가사, 곧 「기회곡」, 「춘경가」, 그리고 동일 제목의 다른 작품인 「답춘경가」 2편이 실려 있다. 가사 4편은 공통적으로 경남 의령 정곡면 중교리에 서 살았던, 삼성가 이병호(李秉灝)·이병철(李秉喆) 집안 사대부 여성들이 마을 일대를 다니며 봄놀이를 감흥과 소회를 노래한 것이다. 봄놀이를 다녀온 후 참여자 각각이 느낀 심회와 소감을 각각 네 가지 시각으로 담아낸 공동작이자 연작가사(連作歌辭)에 해당한다. 마지막 가사 「답춘경가」는 다른 이들과 함께 미처 봄놀이에 참여치 못한 여성 화자가 뒤늦게 혼자 봄놀이 여정을 따로 다닌 후 그 소회를 담아냈다.

경주 이씨 집안의 제종(諸宗) 숙질(叔姪)들이 을묘년(1915) 3월 초과일에 모여 음식을 장만하고 의령 중교리와 인근 명승지(문산정, 관수정, 탑바위, 중화당 등)를 유람하고 뱃놀이하다 돌아왔다. 참석자와 불참자의 면면을 자세히 소개하고, 가문과 출가한 딸 사랑을 하고, 여성이라서 감내해야 하는 제약과 자신의 심회를 밝혔다. 그러나 토로의 정도는 심각하지 않다. 오히려 사대부가

\* 이 논문은 2018년도 강원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로 연구하였음.

\*\*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여성들 간에 느끼는 친화적 연대의식과 봄놀이에 대한 자족적인 태도가 더 강하다. 그런데 네 편의 가사 내용을 모두 종합할 때라야 당시 행했던 봄놀이 일정과 장소, 소요 비용, 장만한 음식 메뉴, 의령 일대의 명승지 등 봄놀이 행사의 전모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4편의 작품은 상보적 관계에 있고, 가사집 『춘경가』 자체가 한 편의 가사 작품을 방불케 한다.

수록된 4편의 가사는 기행가사와 화전가가 결합된 형태의 작품들이다. 한 자리에 모여 음식을 해 먹고 쌓인 회포를 풀면서 여성 간 유대감과 소통을 추구했고, 인근 명승지를 찾아다니며 시를 짓고, 뱃놀이를 하고, 산천 구경을 하며 느낀 심회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정 중심 경물 소개와 가문에 대한 과시를 중심으로 한 기행가사와 놀이를 통한 여성간의 소통과 화합을 강조한 화전가가 혼합된 양상을 보여준다.

그동안 경남 의령 지역 규방가사의 존재 자체와 관련 연구가 적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사집 『춘경가』는 향후 이 지역 규방가사의 문학세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긴요한 자료가 된다. 특별히 종교리 담안 마을에 위치한 이병호·이병철 집안의 여성들이 행한 봄놀이 풍경과 참가자들의 면면, 그리고 그녀들의 의식 세계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핵심어 : 가사집 『춘경가』, 「기회곡」, 「춘경가」, 「답춘경가」, 의령 종교리, 봄놀이, 연작가사, 이병호·이병철 집안

## 1. 들어가며

새 발굴 가사집 『춘경가』는 국립 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경남 의령 일대에 사는 사대부 여성들이 봄놀이 후 지은 필사본 국문가사집이다.<sup>1)</sup> 총 4편의 국문가사 「기회곡리라」(이하 「기회곡」으로 약칭), 「춘경가라」(이하 「춘경가」로 약칭), 「답춘경가라」(이하 「답춘경가 1」로 약칭), 「답춘경가라」(이하 「답춘경가 2」로 약칭)가 실려 있다. 이 4편의 가사는 봄놀이가 다녀온

1)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으로 자료명은 '기회곡'으로 되어 있으나, 표제는 '춘경가'로 적혀 있다. 소장번호-한구 93. 책 크기는 가로 17.9cm, 세로 26.7cm이다.

장소와 여정이 일치하고 있어 그 놀이에 참여한 여성들이 공동된 경험담을 토대로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책으로 엮고 한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봄놀이에 참여한 여성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봄놀이하며 느꼈던 심회를 4인 4색으로 풀어낸 가사집에 해당한다. 『춘경가』와 수록 가사 4편은 아직 학계에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는 유일본으로, 본고에서 처음 소개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무엇보다 새 가사집 『춘경가』의 전모를 개관하고, 의령 지역 규방가사의 문학세계와 작가의식을 고구(考究)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더욱이 아직까지 의령 지역 규방가사는 소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sup>2)</sup>, 『춘경가』 수록 4편의 가사는 봄놀이의 무대가 된 경남 의령 일대에서 행해진 사대부 집안 여성들의 봄놀이 현장과 의령 지역 규방가사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자료로 유용하다. 의령 중교리 지역 명승지에 대한 이해는 물론, 가사 창작 이유와 그 서술 과정에 나타난, 의령 일대 사대부 여성들의 가치관과 의식 세계까지 이해하는 단서로 삼을 수 있다.

---

2) 그동안 규방가사는 경북 일대를 중심으로 향유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일찍이 권영철이 소개한 6,000여 종의 규방가사도 안동문화권과 경주문화권, 그리고 성주문화권, 이렇게 영남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경남지역에서 산출된 규방가사 작품 자체가 경북지역에 비해 적을뿐더러, 관련 연구도 적었다. 그나마 최근 함천, 밀양, 진주 등 경남 지역에서 지어진 가사가 조금씩 보고되고 있다. 경남 거창군 가조면에 사는 변씨(卞氏) 집안에서 필사한 『거창가』는 서부 경남지방을 무대로 한 것이며, 진주 농민 항쟁과 현실 비판을 다룬 가사 『민탄가』도 경남 지역에서 지어졌다. 가야산 일대를 여행하며 지은 기행가사인 『가야회인곡』, 『해인사유람가』, 『계묘년여행기』, 『인사유람』, 『가야해인곡』 등도 경남 지역의 가사작품이다.(최은숙, 『가야산 기행가사의 작품 양상과 표현방식』, 『온지논총』 제41집, 온지학회, 2014, 143~174면)

경남 지역 규방가사로는 함천 화양동 파평 윤씨에서 지은 『기수가』라든지, 김해 허씨의 『망운가(望雲歌)』와 현씨 광씨의 『부겨』가 있고(구사회·박재연, 『새로운 가사작품 김해 허씨의 <望雲歌>와 현풍광씨의 <부겨>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제99집, 한국언어문학회, 2016, 105~126면) 함천 출신의 안동 권씨 부인이 지은 『송비산가』도 경남 규방가사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이수진, 『새로운 가사 작품 <송비산가>에 대하여』, 『동양고전연구』 제44집, 동양고전학회, 2011, 107~129면) 경남 규방가사는 작품 수가 경북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계속 나타날 여지가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춘경가』와 4편의 가사 작품 역시 경남 의령 지역의 규방가사로는 처음 소개되는 것으로, 향후 경남 규방가사 연구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사대부 명문 집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지역이 규방가사 향유의 변방이었는지 여부를 해명하고, 이 이유를 찾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II. 가사집 『춘경가』 개관

가사집 『춘경가』에는 총 37장 77면 분량의 가사 작품 4편이 필사되어 있다. 『기회곡』이 10장(20면), 『춘경가』가 12장(25면), 첫 번째 답가사인 『답춘경가 1』이 11장(23면), 두 번째 답가사인 『답춘경가 2』가 4장(9면)으로 되어 있다. 4편 모두 1면당 10행, 그리고 1행당 평균 15~17자가 필사되어 있다.

이 중 두 번째 작품인 『춘경가』는 내용상 봄놀이를 주관한 여성이 지은 작품으로 내용과 분량이 가장 자세하고 많다. 첫 번째 가사 『기회곡』은 『춘경가』를 지은 여성의 집안에서 갓 시집간 젊은 여성이 혼인 후 처음 친정 집에 와서 봄놀이를 즐긴 감회를 토로한 작품이다. 나머지 두 편 『답춘경가 1』과 『답춘경가 2』는 『춘경가』의 속편에 해당하는 답(答)가사이다. 표제를 ‘춘경가(春景歌)’로 내건 것도 책을 엮은이가 『춘경가』를 대표작으로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후술하겠지만, 4편의 가사를 종합할 때, 비로소 본문 내용을 통해 작가와 창작 시기를 재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사집 『춘경가』는 본문 매 장마다 첫 행 하단 끝에 글자가 필사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존재한다. 소위 ‘침자리’라 하여 침을 묻혀 장을 넘길 때 글자가 흐려지거나 훼손될 것을 고려해 일부러 글자를 적지 않은 것이다. 이는 흔히 세책본(貫冊本) 소설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하다. 책을 접할 독자의 편의를 고려하면서 책의 가치를 높이고자 필사자가 의도를 갖고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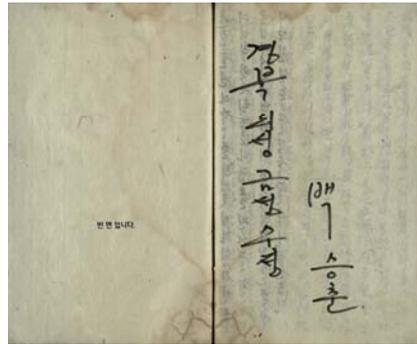
『춘경가』 표지  
(한글박물관 제공 사진, 이하 동일)

또한 본문 필사가 모두 끝나고 마지막 장 빈 면에는 “경북 의성 금성 수정 백승춘”이라는 별도의 메모가 적혀 있다. 필체가 다르고 붓이 아닌 싸인펜 종류로 쓴 것인데, 경북 의성군 금성면에 사는 백승춘이란 이가 일부 수정을 가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본문 중간에 종이를 덧붙여 글자를 수정하거나 오자를 지우거나 탈자를 옆에 부기해 놓은 것이 보이는데, 이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백승춘이 이 가사집을 소장했을 때, 일부 수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백승춘과 『춘경가』 가사를 지은 여성들과의 관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기회곡」 제1면



맨 마지막 여백지 메모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가지 더 살피고 넘어갈 것이 있다. 『춘경가』 본문 첫 면 하단에 ‘雲川文庫’라는 직인이 찍혀 있는 것이 그렇다. 운천문고는 『춘경가』가 국립한글박물관에 입고되기 이전 소장처 직인으로 보인다. 연구자가 확인해 본 결과, 운천문고는 경북대 도서관 내 개인문고명이었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운천(雲川) 백승춘(白承春)이란 이가 소장 고서들을 경북대 도서관에 위탁 형태로 맡겨 놓았던 개인문고를 지칭하는 것이다.<sup>3)</sup> 그렇다면 『춘경가』는 원래 백승춘이 의성군 금성면에 살던 시기에 소장하고 있으면서 수정까지 가한 가사집이고 한때 경북대 운천문고 소장본이기도 했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개인 서적상을 통해 한글박물관에 팔리게 된 것이라 할 것이다.<sup>4)</sup> 백승춘과 운천문고, 그리고 『춘경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3) 예전 경북대 도서관 개인문고 소개란을 보면, 운천문고는 원래 건설업을 하는 백승춘이 가전(家傳)·수집한 자료를 1998년 4월 기증 및 위탁함으로써 만들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증 및 위탁한 고서가 4,000여 권, 고문서 4,000여 장, 목판 70여 점, 등록된 책 수가 604책에 이르렀다. 그러나 십수 년 전 위탁자가 이 고서들을 모두 회수해 갔고, 현재 경북대 도서관에 운천문고란 개인문고도 없다.

4) 국립한글박물관에 문의한 결과, 박물관에서 책을 구입할 때 판매자는 백승춘이 아닌, 다른 전문 서적상이었다고만 알려 주었다. 더 이상 자세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확인하지 못했다.

필요하다.<sup>5)</sup>

그렇다면 이하에서 4편의 가사를 하나씩 간단히 개관해 보기로 하자.

### 1. 「기회곡」

첫 번째 작품인 「기회곡」은 제목부터 낯설다. ‘나그네의 심회, 타향살이에 서 느끼는 생각’이라는 의미의 ‘羈懷曲’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내용을 고려한다면 ‘정기적인 모임에서 부른 노래’, 또는 ‘다음 모임을 또 다시 기약하며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의 ‘期會曲’으로 봄이 더 타당할 듯하다. 「기회곡」 마지막 부분에서 “후기(後期)랄 기약(期約)하야 다시 상봉(相逢)호스이다”라고 한 것을 제목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한다. 작품 전체에 걸쳐 봄놀이가 후 다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 아쉬워하는 마음을 거듭 표명하고 있어 작품의 주제를 대변한 제목으로 보인다.

「기회곡」의 화자는 교양을 갖춘 양반가 여성이다. 16명 이상의 여성들과 함께 명소를 다니며 봄놀이를 꽃구경을 했다 했고, 그때마다 느낀 심회를 중간에 곁들여 놓았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태세(太歲) 을묘년 삼월 초구일에 봄놀이를 다녀왔다.
- 2) 잘 차려입은 규수 닥 여성은 선녀가 내려온 듯하고, 신랑과 잘 지내는 부인은 부럽기만 하다.
- 3) 오육십 되어 보이는 여인은 딸 자랑하는 재미에 폭 빠져 자기 고향일랑 아예 잊고 사는 듯하다.
- 4) 날 좋은 봄날을 잡아 다 같이 모여 흰밥에 개장국을 먹으며 회포를 푸니 좋다.
- 5) 불참한 부인들을 생각하면 아쉽지만, 모인 부인들끼리 맛난 음식 먹으며

5) 백승춘 외에 ‘운천(雲川)’이란 호를 가진 이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김용(金溶, 1557~1620)이 있다. 김용은 안동 하회마을에 대대로 거주해온 풍산 류씨(柳氏)와 함께 그 고장에 뿌리를 내렸던 의성 김씨 집안의 명사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의성 김씨 집안 출신인 운천 김용과 실제 의성에 거주했던 운천 백승춘은 전혀 상관없는 인물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김용 집안과 운천문고, 또는 『춘경가』를 지은 여성 집안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경춘가』를 한글박물관에서 소장하기 전 의성 김씨 집안의 김용 선생 서고나 의성 김씨 집안 관계자가 소장해 왔었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러나 의성 김씨 집안이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일대에 살았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중교리 주민들에게 물어보아도 예로부터 그 마을에 의성 김씨 집안이 거주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수다를 떠니 좋다.

- 6) 모인 이들의 살아온 내력을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격담을 들려주니 좋다.
- 7) 좋은 날 모여 선경지락을 즐기니 이 즐거움이 오래되길 바라나, 다음에 또 이런 흥취를 맛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 8) 부모를 떠나 17세에 백리 타향으로 시집갔다가 5~6개월 만에 시부모 허락 받아 고향 정집에 와 봄놀이에 참여하니 기쁘기 그지없다. 친정집 ‘한마’가 주관한 봄놀이라 감회가 남다르다.
- 9) 행복하고 멋진 자연을 완상하고 좋은 이들 만나 좋은데, 다시 만날 날 기약하려 하니 희희낙락하던 시간이 꿈을 꾸 것만 같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기회곡』에서 봄놀이한 장소와 모임 공간에 관한 서술은 거의 없다. 봄놀이 여정이나 참가자의 면면 소개보다 봄놀이에 참여해 기쁘지만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감정 토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화자는 봄놀이하던 장소나 풍류를 즐기던 장면을 세세히 보여주려는 관찰자 입장보다 화자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데 관심이 많은, 주관적 감정 전달자로서의 면모가 강하다. 특히 7)~9)에서 화자는 이런 모임을 다시 기약할 수 없을지 모른다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거듭 나타내고 있다.

한마의 활협(闊狹) 슈단으로 우리 면면 좌우로 웅위하야 여기 가즈 저기 가즈 정각마다 차즈든니 산천도 슈려호고 시니 류슈(流水) 굉장하다 만화방창(萬化方暢) 의의 두견성(杜鵑聲) 처창(悽暢)하니 이것 또한 구경니라 처처의 경기로도 간 곳마다 듀육(酒肉) 음식 우리 모도 포식(飽食)하니 그 아니 조흔손가 공교한 우리 싱만 흥날니 도움인가 선경낙다(仙境樂地) 우리 고향 어이하여 도라설고 아녀(兒女)의 약한 심장 비흥(比興)이 송반이라 이 도한 소회(所懷)로다 헛부다 우리 등(等)이 한당의 즐기오느 이겨시 장구(長久)할가 이변의 갈여 오면 후기 언약 언지런고 다시 싱면(生面) 어려쿠닷<sup>6)</sup>

여기서 ‘한마’는 화자의 할머니[할마]를 정겹게 부르던 말이다.<sup>7)</sup> 한마가

6) 『기회곡』, 『춘경가』, 7a~7b면. 원문 제시와 관련해 구의 운용과 가사 양식의 특징을 살피기 위해서라도 ‘/’, ‘//’와 같은 기호로 구와 행을 구분해야 할 것이나, 여기서는 분량 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7) 경남 지역에서는 할머니를 ‘할마’, ‘할마씨’로 부른다. 때때로 할마는 친엄마를 정겹게 부르

이번 봄놀이를 주관하여 마련한 음식과 봄 구경 모두 만족스럽고 좋다고 했다. 술과 고기를 포식할 만큼 마음껏 먹고 즐겼으며, 산천경개 또한 아름답기만 하다. 이런 선경낙지(仙境樂地) 같은 고향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렇기에 연거푸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를 염려하고 있다. 화자가 어떤 처지의 여성인지를 아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슬프다 우리 인성 전생(前生)의 화익(禍厄)으로 여신(女身)니 도야 느셔 조상부모  
금작갓한 골육나라 금의 육십의 강보(襁褓) 유아(乳兒)갓치 십칠연(十七年) 즈라  
날 제 평생(平生)일 들 아라더니 여즈 유흥 은원부모 니 형데(兄弟) 고금(古今)의  
상식(常事)어날 우리 엇디 제(除)허리요 부모임니 복두 자이(慈愛) 할 일 업시 원별  
(遠別)호고 백니(百里) 타행 부디 촌의 누을 바리 도라서며 강산 풍물 조흔 경기(景  
概) 낫도 설고 문(門)도 서러 조흔 줄 아조 업니 어설픈 구택(舊宅)스리 오락삭의  
경경 스모 하웁다가 구고(舅姑)의 흥은(鴻恩) 혜택 모춘 삼월 초구일의 귀령(歸命)을  
시기시니 싱장고 가후어 들러 유명 즈인 조상 부모 손잡고 반긴 후의 그 다음 동기  
숙당(叔堂) 동반(同伴) 친척집 슈담낙(數談樂)의 각 담화(談話) 후 스면팔방히 칭표  
할 마쌍 니일(來日) 석담화 신기호고 공교호를 일필노써 스의 다 기록 못 노소간(老  
少間) 여형이야 구택(舊宅)의 마인 몸일 엇디호여 모면할고<sup>8)</sup>

“우리 인성 전생(前生)의 화익(禍厄)으로 여신(女身)니 도야 느셔”라며 자신이 여자로 태어난 것이 전생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 했다.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애써 자위(自慰)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는 17세에 고향과 부모를 떠나 낯선 집안에 시집 가 살다가 시부모의 허락을 받아 5~6개월 만에 삼월 초구일에 친정집에서 마련한 봄놀이에 참여하기 위해 고향에 돌아왔다고 했다. 그렇기에 자애로운 백발 친정 부모의 손을 잡으니 반갑고, 일가친척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익숙하지 않은 시댁살이(“어설픈 구택(舊宅)스리”)에서 벗어난 여행이라 비록 노소가 함께 하나 상관없다고 했다. 친정집에 돌아와 모처럼 어리광을 부리는 듯 신이 난 화자의 즐거운 심정이 행간 사이에 배어 있다. 친정집에 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것을 너무나 바랐기에 이런 행복한 순간이 더디 가고 오래 지속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기

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8) 『기회곡』, 『춘경가』, 7b~8a면.

에 「기회곡」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는 가사를 지어 거듭 숙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나마 여성들 간 만남과 봄놀이의 즐거움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했다.<sup>9)</sup>

그런데 「기회곡」에는 창작시기와 관련해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금연(今年) 티세(太歲) 을묘연(乙卯年)의 씨 ㅁ춤 삼춘(三春)이라”며 봄놀이한 시기를 ‘을묘년’으로 명시해 놓았다. 문제는 을묘년이 어느 을묘년인가인데, 1855년과 1915년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기회곡」 다음에 나오는 다른 세 가사 작품 내용까지 참고한다면, 을묘년은 1915년이 확실해 보인다. 왜냐하면 다음 가사 「춘경가」에서 “서울딛은 경성 건문헌 후 즈니 일국의 잇듬이요”<sup>10)</sup>라며 ‘경성’을 운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들이 찾았던 명소 중 ‘문산정(文山亭)’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문산정은 의령 중교리 출신이자 삼성 그룹 창시자인 이병철(李秉喆)의 조부 이홍석(李洪錫, 1838~1897)이 말년에 지은 정자다. 따라서 창작 시기를 아무리 빨리 잡아도 1897년 이후라 할 수 있다. 『춘경가』 수록 네 편 가사가 모두 동일 봄놀이에 관계된 여성들이 지은 작품이라 할 때, 가사집 『춘경가』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서울을 경성으로 부르기 시작한 1910년 이후, 곧 을묘년(1915) 이후에 지어진 작품으로 확정할 수 있다.

## 2. 「춘경가」와 「답춘경가」 2편

### 2.1. 「춘경가」

「춘경가」는 이 가사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작품이다. 먼저 「춘경가」에 나타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서사
- 2) 3월 초파일에 꽃구경을 갔다.

9) “허다지설(許多之說) 장황 우습고 남쇠 한마의 문장명필(文章名筆) 자자(字字) 숙독(熟讀) 간슈(看守)홍여 타일(他日)의 갈여 안자 그림고 그리운 격 한마의 즈리 즈상홍신 인후성덕(仁厚成德)으로 일석(一夕) 담소(談笑) 즐거움과 갖치 서로 만기닐닷 헛부다 한마 한마야 현숙홍읍다가 다시 봐와 즐기오문 망천게도 축축늬의 기리 망필 만드라 보시고 씨와 뒤시얌”(「기회곡」, 「춘경가」, 11a면)

10) 「춘경가」, 「춘경가」, 17a면.

- 3) 제종 숙질들과 회동해 꽃놀이 음식 경비와 음식을 마련했다.
- 4) 당상에 모인 20여 명의 여성들이 현재 자신들의 처지와 모임에 대한 회포를 기록으로 남기자고 했다.
- 5) 출가한 집안 여성과 명문 집안에 시집보낸 딸들 자랑을 하다.
- 6) 이번 모임에 불참한 이들의 사연을 말하고, 불참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다.
- 7) 지리산과 화양산, 남강과 낙동강의 합수 지역을 따라 명승지를 유람하다.
- 8) 문산정(중교촌) - 관수정 - 서강정 - 뱃놀이 - 탑바위와 초당(중화당)을 거쳐 귀가하다.
- 9) 봄놀이에 자족하고 재상봉을 기약하다.
- 10) 모임 장소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춘경가를 짓다. 이 춘경가는 화기산의 앵무새나 알 것이다.(결사)

이 봄놀이에 참여한 제종(諸宗) 숙질(叔姪)과 시매(媿妹)만 해도 20여 명에 이른다고 했다. 화자는 참석자가 많아 모임이 성공적이었음에 감사를 표했다. 먼저 모인 여인들끼리 서로 자신들의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신세를 토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 후 다함께 봄 구경을 다녀왔다.

작품의 결사 부분에서 “어와 누 알이요 만단정스(萬端情事) 밋치도다. 춘경가를 지어너니 지음(知音)허리 누기든고. 아마도 단장 화기산의 줌든 잉구네 알이라 흐노라”라며 세상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알아줄 이가 적다고 했다. 그만큼 이번 모임 종교가 무척 아쉽다는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이다. 이때 화자는 특별히 밀양시 단장면(丹場面)에 위치한 화기산<sup>11)</sup>의 앵무새만이 자신의 지음(知音)이라 했다. 이것은 아마도 『춘경가』의 작가가 원래 화기산이 있는 밀양 출신 사람으로서 의령으로 시집 와 살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의 마음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현실 인간 세계에서 자족할 수 없는 여성들의 삶의 무게를 간접적으로 자연물에 기대 표출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춘경가』에는 작가와 창작 시기, 그리고 봄놀이 장소를 비정할 수 있는 단서가 다수 들어 있다.

11)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에 위치한 산이다. 원래 단장면에 속했으나 현재는 산외면으로 편입되었다.

덕유산은 유덕하고 지리산(智異山)은 웅중하다 저기 리남(以南)은 삼신산(三神山)니 분명하다 가소롭다 진시황은 불노초(不老草)을 구하라고 오백 동자 보니 삼신산은 저기두고 어디가서 약을 키고 방니손은 방이 갖고 화왕산(火旺山)은 불도갓다 낙동강 흐른 물은 명호로 내려가고 남강수(南江水) 흐른 물은 낙동강의 합수(合水)된다 저기 저 손 바른 또 엷든 물이 흘러 갈고 이 산천니 수려하니 인걸(人傑)인들 오죽할가 이 아리 둥교촌은 이만 상륙 바다온닷 명당이 평활하니 스부의 가거하다 산기를 겨우 츠츠 문산정(文山亭) 도라드니 반갑다 문산정은 우리 집 선편이라 기화요초(琪花瑤草) 만발(滿發)하니 이곳지 산경(山景)일 닷 디강 역력(歷歷) 구경하고 천동즈 분부하여 일호담시두고 강호로 내려가시 만 접 풍경 구경할계 우호로난 정암(鼎巖)이요 아리로난 호미(虎尾)로다 관수정 놓 피 울는 디강 슈을 구어보고 서강정(西岡精) 놓 피 울는 즘간 활각 흐즈 우의등선(羽蟻登船)을 즘바타고 강상(江上)의 놓 피 셔서 좌우 풍광 도라보니 평산(平山)은 점점(點點)이요 장강(長江)은 묘묘(淼淼)하다<sup>12)</sup>

위 인용문은 여성들이 모여 한 자리에서 쌓인 회포를 풀 후, 산천 구경을 다닌 장면을 서술한 부분이다. 여기서 화자가 처음 서 있던 곳이 방내산과 화왕산이 가깝고 남강물이 낙동강에 합수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인걸이 많이 나는 ‘둥교촌’<sup>13)</sup>이 있고, 문산정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했다. 꽃구경하기 위해 출발한 곳이 둥교촌이고 봄놀이를 위해 여성들이 모였던 집도 이곳에 있음을 알려준다. “산기를 겨우 츠츠 문산정 도라드니 반갑다 문산정은 우리 집 선편이라” 하여 문산정이 화자의 집이라 했다. 그러면서 근처에 정암과 관수정, 그리고 서강정까지 있음을 운운하는 등 봄놀이 하던 공간과 지역을 자세히 소개해 놓았다.

이런 장소와 지명이 모두 나타나는 곳은 바로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둥교리 일대다. 정곡면 둥교리는 화왕산(火旺山)<sup>14)</sup>과 덕유산, 그리고 지리산 사이

12) 『춘경가』, 『춘경가』, 21b~22b면.

13) ‘둥교촌(中橋村)’은 오늘날 의령군 정곡면 둥교리를 일컫던 옛 지명이다. 1914년 일제강점기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둥교리로 바뀌기 이전까지 불렀던 마을 명으로, 1789년 자료인 『호구총수』에도 ‘둥교촌’이란 지명이 보인다.

(<http://uiryeong.kccf.or.kr/html/sub03/sub0304.php?mode=view&idx=128>; 의령문화원, 『의령의 지명』 참고)

14)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과 고암면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낙동강과 밀양강이 둘러싸고 있는 창녕의 진산이다.

에 있고, 남강 물과 낙동강 물이 합수하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정암(鼎巖)<sup>15)</sup>과 관수정(觀水亭)<sup>16)</sup>, 서강정(西岡亭)<sup>17)</sup>은 죽전리와 중교리 남강 변에 위치한 명승지이자 서재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문산정은 정곡면 중교리 문산사 맞은편에 있는 서재 겸 정자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호암(湖巖) 이병철의 조부인 문산(文山) 이홍석(李洪錫)이 말년에 세운 정자다.<sup>18)</sup> 중교리 ‘담안[牆內] 마을’로 불리는 곳에서 이병철이 태어났고, 경주 이씨 집안사람들이 대대로 살아왔다. 게다가 의령의 마지막 유학자이자 이병철과 사촌지간인 홍당(弘堂) 이병호(李秉灝, 1892~1964)도 이 담안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 홍당은 자신의 문집 『홍당문집(弘堂文集)』에서 문산정과 중화당(中和堂)에서 공부하며 자랐다고 했다.<sup>19)</sup> 여기서 중화당은 홍당의 11대 조부인 화헌(和軒)李宗욱(李宗郁)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집이다.<sup>20)</sup> 따라서 ‘춘경가’는 적어도 문산정과 중화당을 세운 경주 이씨 가문 여성이 1897년 이후 을묘년에 지은 가사 작품들을 모아 놓은 것임이 분명하다.

마을의 명소를 찾아 거닐며 온갖 꽃과 새소리를 감상하고, 풍경에 감탄하며, 고사를 인용해 흥취를 표현한 것은 봄놀이의 즐거움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의령 정곡면 일대가 산천이 수려하고 인걸이 많이 난다고 했

15)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남강에 위치한 바위섬이다. 이병철의 호인 ‘호암(湖巖)’은 호수 위 바위, 곧 정암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리 셋 달린 솔 모양을 한 바위라는 의미의 ‘정암(鼎巖)’은 흥미롭게도 주변 8km 이내에 삼성(이병철), LG(구인회), 효성(조흥제) 그룹 창업주의 생가가 있어 부자의 기운이 서린 곳으로 유명하다.

16) 관수정은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호미진(虎尾津) 근처에 있는 정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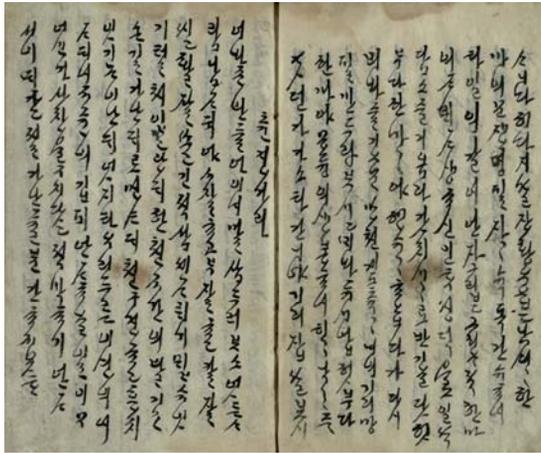
17) 서강정은 벽진 이씨인 서강(西岡) 이중후(李中厚, 1865~1934)가 집안을 다스리고 공부하기 위해 자제들이 별장 옆에 지어 준 정사(亭舍)다. 이중후는 말년에 이곳에 머물면서 집안 대소사를 논의하고 많은 종족과 친구들을 모아 시회를 열곤 했다.(李中厚, 『西岡文集』 卷4, 附錄篇(宋浚弼, 『墓碣銘』); 윤호진, 『서강 이중후의 생애와 시세계』, 『남명학연구』 제37집,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3, 4~9면에서 재인용)

18) 이홍석이 사망한 해가 1897년이므로, 이 가사는 최소한 1897년 이후에 지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병철이 5세부터 이 서당 겸 정자에서 한학을 배웠다.(의령군지편찬위원회, 『의령군지(上)』, 의령군지편찬위원회, 2003, 387면.) 현재 문산정은 문산사(文山寺)라는 절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19) 이병호, 『홍당문집』, 1966년刊, 『한국역대문집총서 1162』, 경인문화사, 488면. “退則整書案於文山亭及中和堂”; 김동식, 『홍당 이병호의 학문과 그 시대적 의의』, 『남명학연구』 제37집,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2013, 138면.

20) 의령군지편찬위원회, 『의령군지(上)』, 의령군지편찬위원회, 2003, 387면.李宗욱은 이병호·이병철의 11대 조부로 의령장 광재우와 함께 왜구에 맞서 싸운 유학자였다.

다. 특히 중교촌은 명당자리에 위치해 있어 더욱 그렇다고 했다. 그만큼 참여한 여성들의 집안이 대단하고 인재가 많다는 점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다 할 것이다. 중교리에서 문산정을 들렀다가 그 길을 이어 저 멀리 관수정까지 올라 나무를 굽어보고, 다시 서강정에 올라 산천을 굽어보니 자연 풍광이 신선계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리고 탑바위를 구경하고 달이 떠오를 무렵 중화당에 다시 돌아옴으로써 모든 일정이 끝났다고 하여 봄놀이 여정까지 자세히 소개해 놓았다.



『춘경가』

## 2.2 『답춘경가 1』

『답춘경가 1』에 담긴 주요 내용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서사
- 2) 대장부는 출장입상에 목표를 두고, 소설 속 여장부도 나라를 구하는 큰 공을 세운다. 그러나 현실의 여자는 규방 여자이기에 춘경 구경이나 하는 게 좋다.
- 3) 모임을 위한 경비를 마련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도계재와 문산정 중 도계재부터 구경하기로 결정하다.
- 4) 도계재에서 시매(媿妹)들이 왓자지껄 떠들다. 오진 침을 먹고 꽃구경을 나서다.
- 5) 문산정을 구경하고 현풍 팍씨네 간정인 관수정에 오르다.

- 6) 정자 정(亭) 자(字)를 운(韻) 삼아 시 짓기를 하다.
- 7) 강가에서 기생 2인을 만나 함께 뱃놀이를 하다.
- 8) 기녀들과 작별하고 탑바위를 구경한 후 꽃을 꺾으며 귀가하다.
- 9) 중화당에서 휴식하며 자손 영달과 집안 창대를 기원하고, 최고였던 이번 봄놀이를 내년에도 다시 참여하기를 기약하다.
- 10) 이별 전 참여자의 면면을 호명하며 행동거지를 당부하다.
- 11) 여러 새댁들이 편을 갈라 가사(歌辭) 짓기를 시합하다.
- 12) 결사

첫 번째 「답춘경가」에는 이전 작품인 「춘경가」에서 보인 일정과 봄놀이 활동이 유사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렇기에 「춘경가」에 화답하는 답(答) 가사로서의 성격이 뚜렷하다. 모처럼 바깥을 나갈 수 있는 것이 꽃구경하는 춘경 놀이라 새댁과 출가한 시미(媿妹)들을 합해 수십 명이 함께 봄 구경에 참여했다고 했다.

그런데 「춘경가」에서 보이지 않는 내용이 더러 보인다. 명승지 유람을 어디로 갈지 의논하는 장면 묘사와 함께 문산정을 가기 전 먼저 도계재(陶溪齋)<sup>21)</sup>부터 들른 사실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자를 주로 다녔기에 ‘정자 정(亭) 자(字)를 운자로 삼아 한시 짓기를 한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뱃놀이할 때 기생 2인을 우연히 만나 합석해 여성들끼리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문산정을 거쳐 곽씨(郭氏)네 집인 관수정에 이르렀고, 그 후 탑 바위를 구경하고 중화당에서 시를 읊고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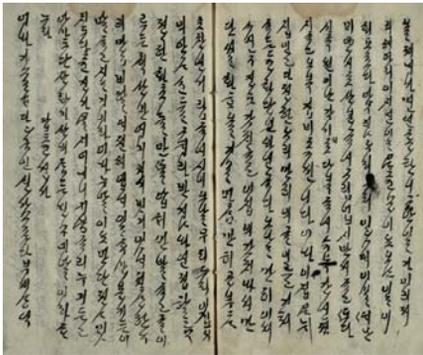
그런가 하면 중화당에서 이번 봄놀이를 정리하는 의미로 여러 명의 새댁들이 편을 나눠 가사 짓기 시합을 했다고까지 했다. “우리 여러 시덕들도 두로 모와 한 편 되야 가스(歌辭)을 지어너니”라 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답춘경가 1」은 공동으로 지은 결과물일 수 있다. 규방가사가 공동작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뿐 아니라, 봄놀이 후 가사 짓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자 또 다른 풍류이자 오락 활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말미에 “스람의 인정이 조흔 일노 만노오며 다시 회포 난다키로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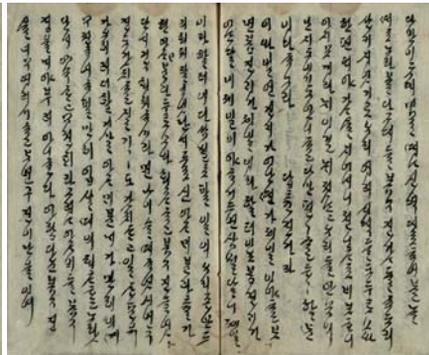
21) 진주 강씨 문중에서 의령군 정곡면 정곡마을에 지은 재실 도계재(陶溪齋)를 가리킨다.

날 우리 노림 쫓티 다시 정회 흐난다”라며 즐겁게 끝난 봄놀이를 못내 아쉬워하고 다시 상봉할 날을 기약하고 있다. 이후에 참여자를 일일이 호명하며 그들을 기억하고자 한 방식은 『춘경가』와 대동소이하다. 착실덕, 남월덕, 연순덕, 수리덕 등을 일일이 부르며 이들의 성격과 장기를 평가했는데, 그 숫자가 총 16명에 이른다.

다른 한편으로, “옛말 속담의 고기 맛분 중이 집의 별당 파리 안 남다 흐더니 그더들 회포맛 보있다가 여간 종문 결단 닐다”라며 ‘고기 맛분 중이 집의 별당 파리 안 남는다’는 속담까지 인용하며, 집안을 말아먹을 수 있으니 봄놀이 후유증에서 어서 빨리 벗어날 것을 권하고 있다. 해학적 요소마저 느껴진다. 그만큼 이번 봄놀이가 흥겹고 성공적이어서 여운과 아쉬움이 큼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답춘경가 1』



『답춘경가 2』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면 남녀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소설 속 여성영웅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자로 태어나면 출세와 입신양명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여자는 목단(牧丹)이나 『옥루몽』의 여주인공 강남홍 같은 영웅은 드물고 규중에서 온유하게 지내는 게 일반적이라 했다. 『답춘경가 1』에 의거할 때, 의령 일대 여성들도 국문소설을 즐겨 읽었던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이야기 속 여성영웅과 현실의 여성을 대비해 앞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자.

## 2.3. 『답춘경가 2』

『답춘경가 2』는 “첫지 글노 허여 미리 안즈 회포로 다 답춘경가를 정곡으로 디어니니”라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춘경가』에 대한 답가 형식으로 지어진 것이다. 특별히 봄놀이에 불참한 여성이 지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답춘경가 2』의 작자는 수십 명이 참여한 봄놀이에 기별을 받지 못해 참여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는 점을 거듭 표명했다. 3월 초파일에 중반들이 봄놀이를 다녀왔는데, “아즈미”들이 작가 자신이 없을 때 봄놀이를 다녀온 것이 못내 무정하고 야속하다고 했다.

니 구경니 허무하니 쏘다시 원망난다 익가 무정히라 아즈미분니 무정히라 겨우  
구경 하시라고 날까지 밧아시면 먼 손이 니 잇난디 통기(通壽)는 할 것이져 알리지도  
안이하고 자기들만 조타 말가 더우느 출가한 아즈미 분니난 정월부터 구경하즈  
나와 악속 이섯난디 악속은 어디두고 기별도 안이하고 즈기들만 논단 말가<sup>22)</sup>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놀다 온 것이 야속하기 그지없다는 심회를 “쏘 다시 원망난다”, “아즈미분니 무정히라”, “통기(通壽)는 할 것이져 알리지도 안이하고 자기들만 조타 말가”, “즈기들만 논단 말가” 등의 표현을 통해 절절이 담아냈다. 사전에 함께 꽃구경 가자고 약속까지 한 터라 자신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봄놀이를 다녀온 ‘아즈미’들이 더욱 원망스럽기만 하다.

그래서 위 인용문 다음 부분에서 화자는, 비록 꽃구경할 시기는 지났지만, 아쉬운 마음에 혼자서 뒤늦게 봄구경을 떠났다고 했다. 그런데 흥이 날 리 없고 만개한 꽃구경도 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헛구경’을 했으며 자신의 구경이 허무하니 더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고 했다. 동일 봄놀이를 비참여자 입장에서 메타적으로 바라본 시각이 드러나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작품 말미에 “니 소위 디장부로 여즈들 잘하고 모자라믄 마음의 두올손가”라 하여 야속하게 느끼고 원망하는 마음이 실은 진심이 아니고, 더 이상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속내를 보이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실제 작가가 남자라는 것이 아니고, 함께 참여하지 못한 봄놀이에 대해 사내대장부처럼 씩씩하게 털고 마음에 담아 두지 않겠다는, 일종의 내려놓음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22) 『답춘경가 2』, 『춘경가』, 39a면~39b면.

『답춘경가 2』는 『춘경가』에서 소개한 일정과 대동소이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전체적으로 일정 소개가 비교적 소략하다. ‘관수정-서강정-선유(船遊)-중화당-집’으로 다니며 자신보다 앞서 꽃구경하며 놀았던 이들의 흔적을 찾아다니며 시샘하고 원망스럽다며 투덜대는 장면 연출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화자는 그 야속한 심정을 앞 여성들이 다녀간 곳을 찾을 때마다 그곳에서 한시 한 수씩을 지어 새롭게 읊어 내는 것으로 아쉬운 심회를 대신하고 있다. 총 5편의 한시 구절을 읊고 그 뜻을 설명하고 있어 상당한 소양을 지닌 여성임을 알 수 있다.

『답춘경가 2』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서사
- 2) 3월 초파일에 종반들의 봄놀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해 속상하다.
- 3) 위로 차 혼자 봄 구경을 다녀왔으나, 감흥이 적어 헛구경을 했다.
- 4)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모임을 가진 것이 못내 서운해 시 한 수를 짓다.
- 5) 늦게 핀 꽃들을 보며 반가운 마음에 시 한 수를 읊다.
- 6) 관수정에 올라 시 한 수를 읊다.
- 7) 서강정에 올랐다가 내려와 앞 사람들이 기생 2명과 뱃놀이하던 곳에 가 뱃놀이하며 미인 변창가를 읊다.
- 8) 중화당 기처소를 찾아가 앞 사람들의 흔적을 되짚어보고, 야속한 마음에 시 한 수를 또 읊다.
- 9) 원망하는 말 모두 농담이다. 다시 못 볼까 싶어 ‘춘경가’에 ‘답춘경가’를 지어 회포를 담고자 한다.
- 10) 결사

한 가지 추가하자면 『답춘경가 2』에는 『답춘경가 1』에서만 언급된, 기생 2명과 뱃놀이 내용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뱃놀이하던 곳을 찾은 화자가 앞 사람들이 기생들과 함께 노래 부르며 뱃놀이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부러운 나머지 자신도 한시를 지으며 봄놀이의 흥취를 동일하게 맛보고자 했다. 『답춘경가 2』가 『답춘경가 1』의 내용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내용의 가사를 지은 것임을 짐작 가능하다. 결국 『답춘경가 2』는 『춘경가』와 『답춘경가 1』에 대한 일종의 답가사(答歌辭)이면서 봄놀이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경계에 서서 외부적 시선에서 들려준 노래라 할 것이다.

### III. 『춘경가』의 작품 세계와 규방 가사로서의 의미

#### 1. 풍류기행 가사로서의 작품 세계와 구성상 특징

이상 『춘경가』 수록 4편 가사의 내용과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하에서 이들 가사 작품이 지닌 문학적 특질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가사집 『춘경가』 수록 가사 작품들은 동일 봄놀이를 소재로 한 규방가사이면서, 각 편은 화전가와 풍류기행 가사로서의 성격이 적절히 섞여 있다는 점이 유별하다. 흔히 화전가가 놀이를 통한 여성간의 소통과 화합에 기여한다면, 풍류기행가사는 가문에 대한 과시와 여정을 중심으로 한 경물 소개에 치우쳐 있다.<sup>23)</sup>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양가적 면모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먼저 풍류기행 가사로서의 면모부터 보자. 풍류기행 가사로서의 성격은 작품마다 종교리 마을에 있는 공간을 이동에 따른 순차적 전개 방식에 따라 읊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흔히 여행의 경험을 노래한 경우, 장소 이동에 따른 순차적 시간 구성은 가능하지만, 작품 내 인과적 구성 개념은 찾아보기 어렵다. 네 작품 중 『기회곡』은 감흥을 위주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가사 집에서 도입부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세 작품에서 본격적으로 화전가와 풍류기행 가사 성격이 적절히 혼효된 구성을 취하면서 봄놀이 여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네 편의 가사 내용을 종합할 때 추출 가능한 봄놀이 관련 사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을묘년(1915) 3월 초파일에 의령 정곡면 종교리 담안 마을과 그 인근 서재와 정자 등을 다니며 봄놀이를 했다.

둘째, 제중 숙질들이 다 모였다. 참석자는 약 20여 명을 헤아린다.

셋째, 봄놀이 경비를 모으고 삼시 세끼 음식을 준비했다.

넷째, 집에 모여 회포를 풀며 수다를 떨고, 참석자와 불참자들에 관해 자랑과 원망을 드러냈다. 이후 인근 명승지를 다니고, 뱃놀이까지 했다.

23) 박경주, 『화전가와 여성기행가사의 놀이와 여행 체험에 나타난 여성의식 비교』,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4집, 한국고전여성학회, 2017, 133~165면.

다섯째, 봄놀이하기 위해 찾았던 곳은 ‘도계재→문산정→관수정→서강정  
→뱃놀이→탑바위→중화당’이었다.

봄놀이를 다닌 공간은 대개 정곡면 중교리 내 담안 마을과 호미 마을, 그리고 죽전리에 위치한 별장(서재), 그리고 정자들이었다. 서재나 정자는 대개 이번 모임을 주관한 경주 이씨 집안 소유지였기에 여성들이 편히 머물 수 있었고, 탑 바위나 남강 변은 경치가 좋아 단체로 봄놀이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봄놀이를 위해 한 곳에 모인 일가친척 여성들은 봄 구경을 나서기 전 어디로 다닐지를 놓고 먼저 의논을 했다.

여기저기 니다 발서 회초긋을 의논하니 어디가 적당할고 도계지 문산정은 선 정이요 종실이라 사형이나 촌밀지요 공부소느 칠지рода 우리 여즈 회포소난 그 아니 적당한가 (중략) 문산정도 우리들 집이오며 도계지도 우리들 도계지라 (중략) 이말 저말 더저 두고 도계지로 드러가즈”(『답춘경가 1』)

도계재와 문산정 중 어디를 먼저 갈까 의논하다 결국 도계재부터 가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여기서 도계재(陶溪齋)는 진주 강씨(姜氏) 문중에서 중교리 담안(牆內)마을에 지은 재실(齋室)이다.<sup>24)</sup> 『답춘경가 1』의 화자는 도계재와 문산정이 자신들 집이며 종실(宗室)이라고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산정은 이병철의 조부인 이흥석이 지은 정자이고, 이병철의 생가도 중교리 담안 마을에 있다.<sup>25)</sup> 또한 이병호의 문집인 『홍당문집』에서 홍당은 문산정과 중화당이 자기 서재여서 그곳에서 공부를 했으며, 학도를 모아 놓고 강학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따라서 도계재와 문산정, 그리고 중화당은 모두 이병철·이병호 집안 구성원의 소유 건물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춘경가』와 『답춘경가 1』의 작가는 모두 이병호·이병철 집안 친인척 여성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병호의 생몰연대와 가사 창작 시기인 을묘년(1915)을 고려할 때, 이병호가 23세 때라면 그의 부인 또한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24) 의령군지편찬위원회, 『의령군지(上)』, 의령군지편찬위원회, 2003, 386면.

25) 의령군지편찬위원회, 『의령군지(上)』, 의령군지편찬위원회, 2003, 387면.

여성들은 도계재에서 오전 참을 먹고 문산정으로 이동했다.(『답춘경가 1』) 그 후 일행이 문산정에서 남강변으로 내려왔을 때, 정암(鼎巖)<sup>26</sup>이 위쪽에, 호미(虎尾) 마을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고 했다. 그 후 일행은 다소 거리가 있는 정암이 아닌, 근처 호미 마을에 있는 관수정(觀水亭)으로 갔다. 관수정 또한 고을의 많은 선비들이 모여서 시회를 열고 풍류를 즐기던 곳으로 유명하다.<sup>27</sup> 『답춘경가 1』에서 “관수정 올느셔니 안계가 광활호야~어와 이 집은 누 집인고, 괘씨덕 간정(間亭)일닷”라고 말하고 있어 관수정이 현풍 괘씨(郭氏) 덕 집안 소유임을 알려준다.

여기서 참가자들은 정자 정(亭) 자(字)를 운자 삼아 시 짓기 시합을 벌였다.(『답춘경가 1』) 이때 새댁들과 시매들이 각각 편을 먹고 한시 짓기 시합을 벌였다. 그리고 제출한 시에 대한 품평까지 곁들였다. “양 편 흐를 살펴보니 막상막하 즈지라 지조 글지를 말흐오면 시미들 편이 장원(壯元)이요 당시 정음(正音)으로 말흐오면 시덕들 편니 장원이라 헤헤의 시안(詩眼)과 안목이 업스오니 기 정갑 울울 분가치 못흐로다 호고 서로 디소(大笑)하니”라며 남성들이 정자에서 시회(詩會)를 즐기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 품평까지 하며 풍류를 즐겼다.

그 후 일행은 다시 서강정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강정은 중교리 예동 마을에 위치해 있는 정사로 달성 서씨(徐氏) 소유의 집이다. 그런데 모든 작품마다 서강정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별다른 언급이 없다. 그 후 일행은 인근 남강변에 있는 배에 올라 뱃놀이하며 놀았다. 이때 기생 2명을 만나 그곳에서 즉석에서 노래를 부르며 함께 놀았다.(『답춘경가 1』, 『답춘경가 2』) 뱃놀이를 마치고 일행이 찾아간 곳은 근처에 있는 탑 바위[塔岩]였다. 탑 바위는 남강변에 깎아지른 듯한 벼랑 위에 탑 모양을 닮은 층층바위를 가리키는데, 선상에서 이곳을 바라보는 경치가 황홀하기로 이름난 의령의 명소다.<sup>28</sup>

탑 바위까지 구경을 마친 일행은 다시 출발지인 중교리 답안 마을에 위치

26) 정암[솔바위] 주변은 예로부터 절경이라 풍류를 즐기려는 이들의 발길을 끊이지 않던 명승지이다. 의령 정곡면을 찾는 이들이라면 정암 나무터에서 배를 타고 선상에서 강을 건너며 주위 경관을 구경하는 것이 필수 여행 코스가 될 정도였다. 정암 나무터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길목이라 부산과 김해로부터 창원, 마산, 함안 등 경상도 각지를 오가는 곳이기도 했다.

27) 의령군지편찬위원회, 『의령군지(上)』, 의령군지편찬위원회, 2003, 389면.

28) 의령군 문화공보실 편집, 『내 고장 전통』, 의령군 문화공보실, 1985, 273면.

한 중화당(中和堂)에 가 잠시 쉬었다. 봄놀이의 첫 방문지인 도계재와 문산정, 그리고 종착지인 중화당은 모두 중교리 담안 마을에 있고, 『춘경가』, 『답춘경가 1』에서 이들 장소를 ‘우리 집’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춘경가』는 중교리에 위치한 경주 이씨 이병호 집안의 친인척 여성들이 모여 의령 중교리 담안 마을과 그 인근 지역(죽전리 일대)에 흩어져 있는 서재와 정자를 다니며 봄놀이한 감흥을 노래한 풍류기행 가사로 손색이 없다. 그러면서 은연 중 가문이 점유하던 공간에 대한 자량과 가문의식을 고양하려는 의식 또한 다분히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듯 여정과 봄놀이 장소에 관한 정보를 개별 작품만으론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춘경가』와 수록 가사 4편은 서로 전체와 부분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교직물과 같다. 다시 말해, 가사집 『춘경가』는 동일한 봄놀이를 소재로 4인 4색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으면서 각 편마다 가사집 내에서 고유한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4편의 치밀한 배열 구성과 편집 의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회곡』은 갓 시집간 젊은 여성이 친정집에서 이루어진 봄놀이라 시부모의 허락을 받아 모처럼 봄놀이를 성공적으로 즐겼기에 다음 봄놀이에 과연 참석할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아쉬운 속내를 적극 피력했다. 봄놀이에 대한 감흥만 있을 뿐, 실제 봄놀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해 자세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가사집 『춘경가』를 읽는 이들에게 봄놀이에 관해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바, 서사(序詞)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춘경가』에서는 모임 주관자의 관점에서 실제 봄놀이 진행 과정과 감흥을 자세히 소개해 놓았다. 비로소 봄놀이의 전모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본사(本詞)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이어진 『답춘경가 1』은 『춘경가』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춘경가』의 화자와 비슷한 관심사와 감흥을 대응시켜 화답한 답가사(答歌辭)라는 점에서 두 번째 본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답춘경가 2』는 봄놀이 불참자의 감흥을 제3자의 시각에서 다루었기에 이전 『춘경가』나 『답춘경가 1』과는 결이 다르다. 그러나 이번 봄놀이가 얼마나 성공적이었고 만족스러웠는지를 거리를 두고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봄놀이에 대한 객관적 결산의 의미가

있다. 불참자의 노래라는 점에서 번외(番外) 편(부록 편)이라 할 수 있지만, 본사의 하나인 『답춘경가 1』에 대한 총평의 성격까지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결사(結詞)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할 것이다.

결국 네 편의 작품은 동일 봄놀이 체험을 소재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런 연결이 독자적인 주제적 의미를 구현하는 데 더 큰 단위로 작동하고 있는 연작가사<sup>29)</sup>와 방불하다. 풍류기행가사로서의 가사집 『춘경가』는 이런 작품간 성격을 고려해 한 편의 가사로 편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실 특정 주제나 공동 의식, 또는 공통의 경험담을 여러 편으로 나눠 화답하는 형태로 짓는 연작가사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다.<sup>30)</sup> 화전가나 여성 기행가사처럼 특별히 여성들끼리 공동체 활동(화전놀이, 뱃놀이, 명승지 유람, 집안 잔치 등)을 한 후 공동으로 가사를 짓거나, 기념앨범처럼 모임의 소회를 기록하고자 복수자가 창작에 참여해 이를 책으로 묶어낸 것들이 연작가사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가사집 『춘경가』도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바, 4편의 가사를 독립된 작품으로 그 가치를 따지기보다 한 편의

29) 김유경, 「편지왕래형 구애가사 연구」, 『연민학지』 제5집, 연민학회, 1997, 380면.

30) 남철이 지은 『승가(僧歌)』(1723년경)는 작가가 옥선(玉蟬)이라는 여승과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형태로 쓴 가사로 총 5편의 작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작 가사다. 고려대 소장 『악부(樂府)』와 필사본 『전家宝藏(傳家寶藏)』, 『가사집(歌詞集)』 등에 실려 있다. 남철과 여승이 『승가타령』에 이어 『송여승가(送女僧歌)』와 『승답사(僧答詞)』, 그리고 『재송여승가(再送女僧歌)』와 『여승재답사(女僧再答詞)』가 서로 짝을 이루어 수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팔남, 『연경가사 <승가>의 실상 고찰』, 『어문학』 제81집, 한국어문학회, 2003; 김유경, 「편지왕래형 구애가사 연구」, 『연민학지』 제5집, 연민학회, 1997 등) 그런가 하면 1794년에 지형(智瑩)이 지은 불교가사인 『권선곡(勸禪曲)』도 5편으로 이루어진 연작가사로 불암사에서 관각한 판본이 전한다. (이상보, 『불교가사의 연구(上)』, 『국어국문학논문집』 제7·8집, 동국대학교, 1969; 이상보, 『한국불교가사전집』, 집문당, 1980.) 불교를 믿고 선업을 쌓는 데 힘쓰라는 주제를 전하고자 한 가사로 출가하려는 이들과 출가한 승려, 일반 신도, 가난한 사람들을 각각 권고 대상으로 구분한 까닭에 연작 형태의 가사로 묶였다.

가사 작품 속 상보적 요소로 이해하고자 할 때, 작품의 실상과 규방가사로서의 문학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 2. 화전가류 가사로서의 특징과 여성 의식

한편, 『춘경가』 수록 4편의 작품마다 봄놀이에 참여한 여성들의 의식이 옷이 드러나 있다. 또한 당시 의령 지역 여성들이 행한 봄놀이 풍속 내지 행사 내용까지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화전가로서의 성격 또한 잘 드러난다 할 것이다.

“안뵈[內外] 체친(諸親) 모혀시니 반갑다 달호니덕 못 보와 한일넌니 금 일 상봉 반갑도다”<sup>31)</sup>라며 『기회곡』의 화자는 3월 초팔일에 안뵈의 모든 친척이 모인 사실을 언급했다. 시택과 친정 집안 여성들, 그리고 출가한 여성들까지 모두 총출동한 모양이다. 이전 모임에 불참했다가 올해 참가한 이는 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모이다 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다. 『춘경가』에는 잘 차려 입은 중반 숙질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비를 마련한 장면이 나온다. 『춘경가』의 화자는 이번 봄놀이 모임을 주관한 집주인이었기에 경비 조달에 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청동(靑銅) 20원과 백미(白米) 20되를 모았다고 했다.<sup>32)</sup> 그 밖에 『답춘경가 1』에서는 “청동 빅 양(兩) 빅미 일 석(石)”을 두루 취합했다고 했다.

『춘경가』에는 봄놀이할 때 준비했던, 하루 삼시 세끼 음식까지 소개하고 있다. 아침 식사로는 탁주에 양간회(胖肝膾)<sup>33)</sup>를, 점심 식사 때는 흰 쌀밥에 개장국<sup>34)</sup>을 먹고, 저녁 식사로는 떡을 장만했다.<sup>35)</sup> 그런가 하면 “흰 밥의 지장국은 미리 생각 춤 싱킨다”며 『답춘경가 1』의 화자는 점심 때 먹을 개장국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돈다고 했다. “구탕(狗湯)이야 육탕(肉湯)이야

31) 『기회곡』, 『춘경가』, 5a면.

32) 『춘경가』, 『춘경가』, 12a면. “일문 제중, 첫죄 후덕하신 달산 종남루로 서로 공논하여 취회 물지(取會物質) 모와니니 청동(靑銅)이 리십 원이요 빅미(白米)가 이십 두(斗)라.”

33) 소의 양(양통)과 간을 날로 잘게 썬 음식.

34) 개고기를 여러 가지 양념과 채소와 섞어 함께 고아 끓인 국.

35) 『춘경가』, 『춘경가』, 12b면. “오전 춤은 탁주(濁酒) 잔의 양간회(胖肝膾)가 제일이요 점심 춤 흰밥의난 지장국이 제일이요 오후 춤은 가진 편(片)이 당당하다”

옥반가효(玉盤佳肴) 진취하니 함포고복(含哺鼓腹) 격양가(擊壤歌)은 귀가 소라 못드란닷”<sup>36)</sup>이라며 개장국이나 고깃국을 가리지 않고 배불리 잘 먹어 포만감에 만족스럽다고도 했다. 이때 언급된 음식들은 『기회곡』에서 “조흔 음식 날마다 진취하니”라고 말한 보아 봄놀이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수십 명의 여성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모임이라 더 신경 써서 세 끼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을 것으로 보인다. 봄놀이에 참여한 여성들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인식 하에 성찬(盛饌)을 즐겼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화전가 계열 가사에서 술과 음식을 마음껏 즐기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일탈 추구이자 또 다른 재미와 흥취 요소였다<sup>37)</sup>는 점을 감안할 때, 『춘경가』도 이와 동케를 이룬다고 할 것이다.

『춘경가』 수록 작품들은 작품 안에 청자를 설정해 놓고, 그 청자를 향해 자신의 심사를 토로해내는 진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회곡』에서는 ‘한마’를 청자로 설정했다. 『춘경가』와 『답춘경가 1』에서는 “어와 중반들아”이라며 모임에 참여한 중반들을 청자로 상정했다. 화자가 작자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가사 속 언사도 지시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sup>38)</sup> 이에서 참여자 간 유대감이 강했음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반면 『답춘경가 2』에서는 딱히 설정된 청자가 없다. 부름말로 시작되는 서사가 생략된 특이한 구조를 지닌 가사라 할 것이다. 다만 본사에서 “이가 무정히라, 아즈미들 무정히라”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아즈미’라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야속한 심회를 분출하는 직접적인 언술이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청자가 설정되어 있는 만큼, 4편의 가사 작가(여성)의 처지 또한 다양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화전가로서의 성격은 여자의 신세를 남자의 처지와 비교하는 한편, 참석자와 불참자들의 면면과 사연을 소개하고 집안 자랑을 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 가능하다. 『춘경가』 수록 작품들마다 여성으로서 이런 봄놀이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자각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들이 보인다.

『기회곡』은 “우리 각각 여즈디여 면 조상의 후예로서 동서남북 허터 안

36) 『기회곡』, 『춘경가』, 5b면.

37) 유정선, 『화전가에 나타난 여성의 놀이 공간과 놀이적 성격 - 음식과 술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고전문학연구』 제19집, 한국고전문학학회, 2009, 57~83면.

38) 이정옥, 『영남 내방가사와 여성 이야기』, 박문사, 2017, 20면.

즈 면면이 가련한 심각 노소 간 일반이라”<sup>39)</sup>로 시작한다. 물론 다른 규방가 사에서도 보이는 관용적 표현이지만, 이런 발언은 원래 남녀노소가 구분이 없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화자가 평소 의식하고 있었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을 때라야 자연스럽게 표출 가능한 사유의 흔적이라 할 것이다. 화자는 여자도 먼 옛날 조상은 남자와 매한가지이고, 느끼는 감정도 노소라고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여자도 태어나 살고 있다는 실존에 대한 자각, 그리고 여성이어서 스스로 느끼는 감정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여성 전체의 문제로 불러오고 있는 장치로서 효과적이다.

어와 종반(宗班)들이 이니 말삼 드리보소 엇든 스람 남즈되야 스(事) 잘하고 부(富) 잘하고 칼 잘 써고 활 잘 쏘고 긴 적삼 세 즈리기 밋슈잇기 털쳐 입고 광뒀한 전국간의 발길 손길 가난 디로 명순대천(名山大川) 구경하고 흥치(興趣) 잇기는 이난디 엇지타 우리드른 이 생(生)의 여즈(女子)되여 규중(閩中)의 김피 안즈 훗날 일이 무엇신가<sup>40)</sup>

『춘경가』에서는 여자도 태어나 남자가 부러운 것이 있다고 했다. 남자로서 학문을 닦아 입신양명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치산(治産) 잘하고 재주와 무예가 뛰어날뿐더러 옷 잘 입고 전국 각지를 마음껏 다니며 명산대천을 구경하며 지낼 수 있는 것이 부럽다고 했다. 남성의 자유로운 활동과 즐거움 추구가 제약 많은 생활의 연속인 사대부 집안의 여성에게 있어 가장 부러워하던 지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인생을 즐길 법한 나이에 여자도 태어나 적막한 규중에 처박혀 지내느라 좋은 시절가는 줄 모르고 지내는 자신의 신세가 못내 아쉽기만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한 것은 아니다.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 화자는 먼 데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데라도 구경 갈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현실 극복 의지보다 순응적 태도가 현저하다.

우리도 남지런들 글지느 지을 거실 벽상(壁上)의 현판(懸板) 글 써 소진(蘇秦)

39) 『기회곡』, 『춘경가』, 1a면.

40) 『춘경가』, 『춘경가』, 11a면.

의 단천일석 시미 불너 설석(設席)호고 당상(堂上)의 좌기(坐起)호니 누끼기 오섯  
 든고 손을 급하히 여부 죽잇 좌상의 어룬 분니 니십여(二十餘)분 오셔시니 황송  
 (惶悚)호고 감스하다 슬푸다 우리들 부모임니 빅발 존안(尊顏) 한심심 우리들 너  
 즈다가 여즈의 몸이 되어 부모임 일평성의 설전을 못 모시고 각기 서로 출가되  
 야 약슈봉손 면면고디 천지갓치 외오 안즈 오미불망(寤寐不忘) 전전반측(輾轉反  
 側) 경경불미(耿耿不寐) 사모치심 어나 날 잇사올가<sup>41)</sup>

『춘경가』에서 일행이 당상(堂上)에 올라갈 때, 화자는 남자라면 바로 당  
 에 걸 현판 글귀라도 지으며 즐기러만 본인들은 여자라 그런 일을 할 수 없  
 고 그저 말로 신세 한탄이나 하고 말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글을 잘 짓더라  
 도 현판에 여성의 글을 내걸 수 없는 현실적 차별 상황과 제약을 민감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화자의 집에 종반 숙질들이 20명 넘게 모인 것이  
 고맙다고 했다. 시매(媿妹)들을 모두 자리에 앉히고, 화자는 당상에 앉아 누  
 가 참석했는지 확인했다. 이번 모임의 주관자로서 무사히 봄놀이를 치르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렇기에 이후 부분에도 보면, 불참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고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제종 숙질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불만 섞인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불참자들에 대해 무정하고 야속하며 답답하고 원통  
 하다는 표현을 거듭 사용함으로써 모임을 주관한 사람으로서 갖는 책임감과  
 서운한 속내를 솔직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춘경가』의 화자에게는  
 현재의 성공적인 봄놀이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

참석자를 모두 확인한 후 『춘경가』의 화자는 모임 주관자로서 사회자를  
 겸해 백발이 된 부모님이 생각나 묘한 기분이 든다는 말로 화두를 던졌다.  
 그리고 스무 살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 온 신세임을 인사 자리  
 에서 밝혔다. 모임의 주관자가 지난날의 이야기를 꺼내자, 그 자리에 참가  
 한 여성들이 저마다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심각하  
 지 않고, 길게 소개되고 있지도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참여자의 면면을 소  
 개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얼굴 고운 남매를 원주 권씨 명문 집안으로 시집보낸 여성, 엄격한 장진

41) 『춘경가』, 『춘경가』, 13a~13b면.

안씨 집안으로 딸을 시집보낸 여성, 부용화 같은 딸을 청주 한씨 집안에 시집 보낸 여성, 달성 서씨 가문에 딸을 시집보낸 여성, 그리고 삼사 김씨 집안에 출가시킨 삼종제 김설 등이 봄놀이에 참여했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전주 김씨와 성혼(成婚) 후 처음 놀이에 참여한 박서방 맥은 반갑기만 하나, 불참을 고지한 제종(諸宗) 숙질은 아쉽기만 하고, 돈놀이로 치산을 잘못할까 걱정되기도 한다고 했다. 그 외에도 십 수 명의 여러 외숙과 일가친척이 등장하는데, 그 중 서울맥은 경성을 건문하고 와 일국의 으뜸이라 할 만하다고 했다. “경성”을 운운하며 서울 풍경을 잘 아는 것을 못내 부러워하는 감정마저 엿보인다. 여중군자 같이 활달한 외숙숙, 심행이 양순하고 인심도 좋고 암전한 신촌숙, 이웃 마을에 가 불참한 안동숙, 행동 처신이 지랄 같다는 보골맥, 그 반대로 요조숙녀 같은 남월맥, 치산을 잘하는 방실맥, 유희하고 부덕이 있는 종갓집 종부인 단동맥 등 참여자와 불참자의 처신과 면면을 소개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춘경가』의 화자는 성공적인 봄놀이를 위해 정성껏 준비했고, 그렇기에 더욱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 성공적인 모임이 되기를 바랐던 마음이 컸음을 여실히 엿볼 수 있다. 소위 참석률이 모임의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참여 여성 간 유대의식과 공감대 확보를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춘경가』의 화자는 봄놀이가 끝난 후의 심회를 이렇게 밝혔다.

어와 우리 종반드라 우리들 봄구경이 이만하면 자족하다 어와 우리들 오날은 한 고더 갖치 만니 구경도 갖치 호고 온갓 담화(談話) 하련만난 이 다음란 봄빛슬 건디야 춘하절(春夏節) 다 지니고 가을철이 도라오면 허황할스 우리들리 춘궁(春窮)의 낙엽(落葉) 갖치 예도날고 치도나라 스방(四方)으로 호터지면 엇지 안이 한심할가 실푸다 낙엽은 헛터져도 썩썩리로 도라오건마는 엇디타 우리드른 봄꽃죄를 스러호고 도라올줄 모라난고 한심홀스 여즈유흥(女子遊行) 낙엽만도 못호도다<sup>42)</sup>

봄 구경을 끝내려니 아쉽기만 하다. 이제 헤어지면 봄빛을 건디고 여름 가을 다 보내고 낙엽같이 흩어질 것이라며 다음 봄에 다시 똑같이 모임 수

42) 『춘경가』, 『춘경가』, 24a면.

없음을 아쉬워하고 이별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이러한 야외 봄놀이가 낙엽만도 못하다고 했다. 그만큼 봄놀이 후 느끼는 후유증이 크고, 아쉬움이 크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냈다.

가사집 『춘경가』의 두 번째 본사(本詞)격인 「답춘경가 1」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는 말로 시작한다. 그러나 다른 작품과는 비교의 강도가 구체적이고 세다. 남자는 할 일이 많다고 전제하면서 학문에 힘써 출세하고 입신양명할 뿐 아니라, 말을 타고 진장에 나가 적장을 물리치는 것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 했다.<sup>43)</sup> 그러면서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했다. 그 과정에서 화자는 목단[물란]과 강남홍 등 서사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을 언급하며 그녀들이 열 명의 남자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여즈(女子)로 말하여도 안이나라 목단(牧丹)이난 경즈 관군되야 잇고 명나라  
강남홍은 부용금을 춤을 추며 만군중(萬軍衆)을 놀니시니 그 낭자(娘子) 여즈라도  
열 남즈의 더흐을닷. 그 낭자 고금(古今)의 드문 일이라다 뜻밧기 어려오며  
오날 다만 우리들은 이 생(生)의 여즈(女子)되야 여즈란듯 존약한 여즈로도 성질이  
운유하니 규문(閨門)이느 즉할지라 그러흐는 너무 겁피 안즈 밤낫슬 보니오니  
적적(寂寂)흐고 요요(寥寥)할스 엇지 안니 민망할가 여와 우리 종반드라 삼춘(三春)  
화류(花柳) 도흔 씨의 춘경(春景) 구경 가져서라 흐논니<sup>44)</sup>

문무를 겸비해 전쟁에 나가 호쾌하게 적을 물리치는 남성상과 대비되는 여성으로, 아버 대신 남장을 하고 진장에 출진했던 여성 영웅 목단[牧丹=물란]과 『옥루몽』에 등장하는 여걸 강남홍을 언급하고 있다.<sup>45)</sup> 이는 서사 속 여성영웅이 마음에 간직해둔 이상적인 여성임을 보여주는 것의 다름 아니다. 그런 사실은 서사 속 여성영웅들과 달리 현실에서의 여자는 그저 연약한 존재일

43) 「답춘경가 1」, 『춘경가』, 26a면. “이러한 천지간의 남즈(男子)된 사람들은 하울 일이 허다하다. 사서삼경(四書三經) 달통(達通)흐와 도덕군자(道德君子) 진취학(進就學)은 제일건지 스읍이요 그 다음 출세(出世)흐어 입신양명(立身揚名) 힘을 써서 몸의 금포(錦袍)을 입고 손의 주수(刺繡)을 두고 인주와 음양타가 난세돌진 만니거든 용총말을 치물되여 적진등의 드러가서 적중(敵將)을 버허두고 좌우를 횡행(橫行)하면 디장부(大丈夫) 쾌한 일이요 이밧기 또 이실가.”

44) 「답춘경가 1」, 『춘경가』, 26a면.

45) 남영로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옥루몽』은 19세기 최고 인기 소설 중 하나였다. 20세기 초에는 여자 주인공의 한 명인 강남홍만을 주인공으로 삼은 별도의 개작본 『강남홍전』이 활자본으로 출판되어 애독되었다.

뿐이라는 언술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현실과 상상 속 여성의 삶이 극명히 대비됨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답춘경가 1』의 작가는 소설 속 여성 주인공 이야기를 읽으며 일종의 대리만족을 추구하고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국문소설을 즐겨 읽었던 속사정까지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춘경가』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남성과 여성의 삶 비교는 현실적 고통이나 시련에 기초한 대비 진술이 아니다. 오히려 규방에 온유하게 지내는 것이 좋으나 너무 심심하기 때문에 친인척들과 함께 3월 꽃피는 시절에 봄 경치 구경 가는 것이 좋겠다는 식의 자족 의식으로 귀결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춘경가』 수록 4편의 가사는 여성으로서 남성과 대비되는 지점을 중간에 드러내면서 정체성 문제를 계속 환기시켜 준다. 참석자와 불참자의 면면을 자세히 소개하는 내용 자체가 사대부 집안 여성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대변한다. 그러나 출가한 딸 사랑을 하고, 여성이라서 감내해야 하는 제약과 자신의 심회를 밝히고 있음에도, 그 감정 토로의 정도는 심각하지 않고, 문제해결 의지 또한 별반 없다. 오히려 사대부가 여성들 간에 느끼는 친화적 연대의식과 봄놀이에 대한 자족적인 태도가 더 강하다. 이런 점에서 『춘경가』 작품들은 전형적인 화전가 가사 작품의 전통을 잇고 있다 할 것이다.

#### IV. 나오며

이상으로 아직 학계에 소개된 적이 없는 가사집 『춘경가』와 수록된 가사 작품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대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집 『춘경가』는 경남 의령 정곡면 증교리 담안 마을에 살던, 오늘날 삼성가를 이룬 이병철·이병호 집안 여성들이 행한 봄놀이 관련 규방 가사 모음집이다.

둘째, 이들 가사 작품들은 화전가와 풍류기행가 성격을 동시에 지닌 규방 가사로 20세기 초 을묘년(1915)에 행한 봄놀이 후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사집 전체를 놓고 볼 때, 『기회곡』은 서사, 『춘경가』는 본사, 『답춘경가 1』는 본사의 속편이자 본사에 대한 답사, 그리고 『답춘경가 2』는 결사 겸 번외편의 성격을 지닌다. 이처럼 4편의 작품은 4색의 색깔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분절적이거나 독립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어울려 가사집 『춘경가』라는 한 편의 가사로 공감·수렴되는, 연작 가사로서의 성격을 지녔다. 이것이 가사집 『춘경가』와 수록된 4편이 갖는 독특한 특성이라 할 것이다. 봄놀이 참가자와 불참자의 목소리까지 담은 가사를 한 책에 모으고자 한 편집자의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낱장 형태의 일반 규방가사와는 사뭇 다른 편집 의식이 반영된 작품집이다.

넷째, 『춘경가』는 화진가와 기행가사의 모습이 혼재된 작품으로 규방가사의 전통을 잇고 있는 한편, 여성으로서의 현실 자각 의식이 강하고, 남성과 동등한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꿈꾸는 지향의식이 보인다. 이는 20세기 초 근대 사회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바뀌어 가던 여성들의 의식이 소박하게나마 드러난 결과라 할 것이다. 다분히 『춘경가』 가사 작품들은 봄놀이 한 개인 경험이나 여성들의 공동 의식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한 의도가 보인다. 그러나 그 공동 경험의 산물을 현실적 경험으로 기록해 두거나 여성적 삶의 운명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모습이 감지될 뿐, 적극적인 문제제기나 해결의지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다섯째, 『춘경가』는 가사 4편을 통해 의령 정곡면 중교리 담안 마을에 모인 경주 이씨 일가친척 여성들의 봄놀이 행사를 사실적으로 재현해 냈다. 그 과정에서 인근 명승지에 대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 『춘경가』에는 의령 중교리 마을에서 행한 여성들의 봄놀이 여정과 놀이문화가 자세히 드러나 있어 이 지역 사대부 집안 여성들의 의식 태도와 봄 구경 활동상을 재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된다.

여섯째, 20세기 초 경남 지역의 규방가사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할 것이다. 특별히 지금까지 의령 지역에서 창작, 향유된 규방가사가 소개된 적이 없었기에, 이 지역 규방가사의 성격과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곱째, 향후 의령 지역 문화 유산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자료로서 긴요하게 재 활용될 수 있다. 의령 지역 명승지(도계재, 문산정, 정암, 관수정, 서강정, 탑바위, 중화당) 등 소개는 물론, 이 지역 여성들이 봄놀이하며 즐기던 코스를 봄놀이 탐방 동선(올레길)으로 개발한다거나 스토리텔링의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100년 전 여성들의 놀이 문화와 그 속에 담긴 여성들의 자기 정체성

문제, 그리고 당대 여성들의 생활상과 삶에 대한 번민과 희열의 순간들을 현 재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료로 유용하다.

본고는 세세하게 작가의식이나 각 편의 가사 작품들이 가사사(歌辭史)에서 어떤 위치를 지니는지 평가하는 데까지 나가진 못했다. 작품 개관에 주안점을 둔 결과로,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춘경가』의 자리매김을 보다 온전히 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1. 자료

『기회곡리라』·『춘경가라』·『답춘경가라』·『답춘경가라』, 『춘경가』,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소장번호 한구 93).

의령군지편찬위원회, 『의령군지(上)』, 의령군지편찬위원회, 2003.

의령문화원 편, 『의령의 지명』, 의령문화원.

李秉灝, 『弘堂文集』, 『한국역대문집총서 1162』, 경인문화사, 1966.

李中厚, 『西岡文集』 卷 4, 附錄篇(宋浚弼, 『墓誌銘』).

### 2. 단행본

박경주, 『규방가사의 양성성』, 월인, 2007.

백순철, 『규방가사의 전통성과 근대성』,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이정옥, 『영남 내방가사와 여성 이야기』, 박문사, 2017.

### 3. 논문

구사희·박재연, 『새로운 가사작품 김해 허씨의 <望雲歌>와 현풍곽씨의 <부겨>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제99집, 한국언어문학회, 2016, 105~126면.

김동식, 『홍당 이병호의 학문과 그 시대적 의미』, 『남명학연구』 제37집,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2013, 127~155면.

김영미, 『<덴동어미화전가>에 나타난 놀이적 서사 연구』, 『국어문학』 제63집, 국어문학회, 2016, 129~152면.

김유경, 『연작형 가사의 형성과 변이 연구: <초당문답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_\_\_\_\_, 『편지왕래형 구애가사 연구』, 『연민학지』 제5집, 연민학회, 1997, 379~409면.

김팔남, 『연정가사 <승가>의 실상 고찰』, 『어문학』 제81집, 한국어문학회, 2003, 221~243면.

박경주, 『화전가와 여성기행가사의 놀이와 여행 체험에 나타난 여성의식 비교』,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7, 133~165면.

백순철, 『규방가사의 작품 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유정선, 『화전가에 나타난 여성의 놀이 공간과 놀이적 성격: 음식과 술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1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57~83면.

윤호진, 『西岡 李中厚의 생애와 시 세계』, 『남명학연구』 제37집,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3, 1~40면.

- 이동연, 「화전가류」,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1999, 345~356면.
- 이상보, 「불교가사의 연구(上)」, 『국어국문학논문집』 제7·8집, 동국대학교, 1969, 135~155면.
- 이수진, 「새로운 가사 작품 <송비산가>에 대하여」, 『동양고전연구』 제44집, 동양고전학회, 2011, 107~129면.
- 장정수, 「화전놀이의 축제적 성격과 여성들의 유대의식」, 『우리어문연구』 제39집, 우리어문학회, 2011, 147~179면.
- 정인숙, 「연작 가사 <만언사>의 특징과 중인층 작가의 의미 지향」, 『한국언어문학』 제69집, 한국언어문학회, 2009, 169~197면.
- 최은숙, 「<화전가>에 나타난 자연 인식 양상과 시적 활용 방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3, 219~253면.
- \_\_\_\_\_, 「가야산 기행가사의 작품 양상과 표현방식」, 『온지논총』 제41집, 온지학회, 2014, 143~174면.

## A Study on a Newly Discovered Gasa(歌辭) Collection

*Chungyeong-ga*(春景歌)

Lee, Min-heui

*Chungyeong-ga*(春景歌) is the only collection of Gasa(歌辭) in the National Hangeul Museum, first introduced in academia. A total of four pieces of Gasa are on display; "Giheo-gok(期會曲)", "Chungyung-ga(春景歌)", and another works of the same title, "Answer on Chungyung-ga(答春景歌)" are common works by women members of Lee Byung-ho(李秉灝)'s family in Uiryeong(宜寧), Gyeongsangnam-do. It is a collaborative work and a series of Gasa(連作歌辭), which is a collection of four impressions felt by each participant after spring play. The last "Answer on ChunKyung-ga(答春景歌)" contains emotion of the female speaker, who did not participate in spring play, lately took the spring play trip alone. This song can be called a song from the boundary line between the participants of the spring play and the absentee.

Lee Byeong-ho's family's Number of breeds were gathered on the 8th of March 1915 to get food, and to go to a nearby scenic spot(Munsan-Jeong文山亭, Gwansu-Jeong觀水亭, Tower Rock塔巖, Jungwha-Dang中和堂 etc.) and to go to boating. At this time, while introducing the details of the attendees and the absentee, singer also boasts of her family and daughter who have lived in custody. In these works, there is a strong sense of friendly solidarity and self-sufficient attitude toward spring play among the women in the family. When synthesizing the contents of all four works, we can check the spring play schedule and place, the cost, the food menu, and the scenic spots etc. The four works are complementary relations.

*ChunKyung-ga* is a combination of the traveling Gasa(紀行歌辭) composed of departure-itinerary-ears, and Whajeon Gasa(花煎歌) which sings collective nightlife scene and sings a tough life as a woman. Women gathered in one place to eat food, solve the accumulated emotion, and pursue the bonds and communication among women. Writer focused on exploring nearby scenic spots, building poetry, boating

and watching the mountain. It is a good example of the mixture of the works of the 19th century female writer who emphasized the introduction of the center of the journey and the fascination with the family, and works which emphasize the communication and harmony between women through pla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are few studies and the existence itself of the Gyubang-Gasa(閨房歌詞) in Gyeongnam Province, *Chungyung-ga* is a critical data to identify the literary world of Gyubang-Gasa in the future. These Gasa collection on the spring play performed by the women in Lee Byeongho's family, lived in Dam-an(牆內) Village in Jungkyo-ri, has a special meaning in terms of the good example that can explore women's consciousness and various materials of the spring play.

keywords: *Chungyung-ga*(春景歌), "Giheo-gok(期會曲)", "Chungyung-ga(春景歌)", "Answer on Chungyung-ga(答春景歌)", Spring play, Junggyo-ri in Uiryong(宜寧 中橋里), series of Gasa(連作歌辭), Lee Byongho(李秉灝), Lee Byongcheol(李秉喆)'s family

접수일자: 2019. 3. 31.  
심사기간: 2019. 4. 1.~2019. 5. 10.  
게재결정: 2019. 5. 10.